

“五相 통달해야 부처 이룬다”

금강정경 ①



정태혁 (동국대 명예교수)

있겠는가 하시니, 이때에 일체의성취보살 마하살이 일체여래의 경각(警覺)에 의해서 아사파나카사마지(阿娑婆那加三摩地)로부터 일어나서 일체여래를 예배하고 사외기를 세존이시여, 나에게 교시를 내리소서, 어찌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석존도 오상수행 통해 깨달음 얻어 대원경지·평등성지등 ‘오지’ 설파

까 하고 묻자 일체여래가 이구동성으로 그 보살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이것으로 보면, 석존의 인위인 일체의성취보살마하살이 비로자나불의 경각으로 새로운 선관으로 끌어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사파나카사마지(asphanaka-samadhi)로부터 일어나 일체여래에 예배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신 것이

다. 그러자 일체여래가 이구동성으로 오상성신관을 닦으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 때의 일체여래는 수용신인 비로자나불이다. 여기에 오상성신관이 설해진 동기가 있고, 일체여래의 진실, 즉 진실한 부처의 세계를 알리고 부처가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일체의성취보살마하살이란 싯타르타 태자가 6년간 고행을 끝내고 진실한 진리의 세

태국 나나심판도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행복이 있는 곳 ①

딱

부러지게 말은 안해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런 피상적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욕망의 대상들을 손에 넣는 일에 전심 전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우리에게 향락, 만족 또는 성취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더할 나위없는 소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서로에게 묻는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얼 얻고자 원하느냐”고. 이 질문에는 행복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고, 그대로 좇아갈 수만 있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험은 이론을 뒤엎기가 일쑤이다. 우리가 애타게 구하는 그 잡다한 것들은 도대체 손에 잡혀주지 않으며, 어찌저찌 천신만고 끝에 붙잡아봐도 기대했던 만큼 즐거움을 주지도 않는다. 계속 붙잡고 있을라치면 점점 못쓰게 되고 말아 결국 비애만 안겨준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위안을 찾기에 급급하여 서둘러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려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만종잡탕책이 정확하게 이행되지만 하면, 올바른 대상을 골라내기만 하면, 또 행운이 조금만 거들어준다면, 그랜 우리를 비켜

쾌락·고통을 초월하라

감각적 욕망은 진정한 행복 주지못해

나가기만하던 그 영원한 행복을 틀림없이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어지지 않는다. 반면이 운명에 호되게 당하면서도 우리는 끈질기게 되뇌인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어.” 그리고는 새로운 재미를 찾아 눈을 부러린다.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고생이 보람있는 것일까? 부처님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의 감각적 쾌락, 이룰데면 술이나 재산이나 장밋빛 기대 따위에서는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해도 이런저런 감각적 대상들이 바람직하다는 그릇된 견해를 고집하는 한 안락한 곳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현상의 본질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추구는 처음부터 도로에 그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째 과업은 이 우주에 결코 우리들의 재밌거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끌어내는 류의 즐거움이란 것들이 헛된 것이고 무상하며 관심거리도 못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는 일이어야 한다. 부처님은 세상의 즐거움을 부인하지 않은 반면, 모든 세속적 쾌락은 고통의 단단하게 맺어져 있고, 고통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끝내는 고통에 굴복하고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따라서 쾌락을 열사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끌어안는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갈래가 이 세상에 가져 영상을 끊임없이 투사하는 바람에 주변의 유혹 대상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짜 영상의 개념을 차단시키지 않으면 갈래는 계속 우리를 이 실망에서 저 실망으로 옮겨다녀 할 것이다. 감각적 쾌락이라는 미끼를 물다다 낚시에 캐이는 고통을 수없이 겪어왔건만, 음침음침 다가오는 별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매번 흥분을 사로잡히고 만다.

부처님은 가르치신다. 쾌락과 고통이 한덩어리가 되어 끔찍하게 돌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 둘을 거저지로 갈라놓으려 무모한 노력을 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오염덩어리 전체를 멀찍이서 초연하게 바라보는 데 있다.

오종욱 기자(gobacco@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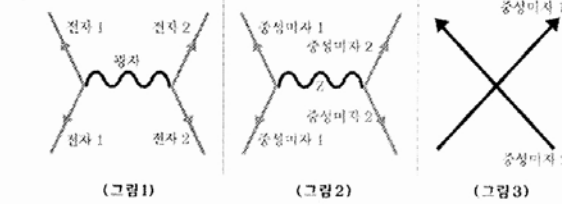
과학산책

W·Z보존 ①

지난 시간에 이어, 약한 전자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W, Z 보손 입자(보존, boson)에 대해 살펴본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전자와 중성미자는 확연히 다르다. 먼저 전자는 1의 음전기를 띠고 있고 중성미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또한 전자는 작지만 질량을 가진다. 반면, 최근에 실험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중성미자의 질량은 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립자와 비교해도 무척 작다. 즉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에너지 수준에서는 전자와 중성미자가 서로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자연의 더욱 근본적인 영역,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동일성이 발생되는데, 서로 확연히 달라 보이는 전자와 중성미자는 W, Z 보손입자에 의해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

하는 과정을 전자가 광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전자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관여하게 되는데, 전자기력은 광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림2에서는 낮은 에너지 상태의 두 개의 중성미자가 접근할 때 서로 상대방의 중성미자에 관계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접근하는 중성미자가 높은 에너지를 가진다면 전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Z 장(場)을 자극하여 Z 보손입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에너지를 중성미자가 공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두 개의 중성미자는 그림3에서처럼 Z 보손입자를 나간다. 물리학자들은 서로 반발

지로 진행하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다. 전자는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력이 관여하여 그림1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림 중성미자의 경우는 어떤 힘, 혹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일까? 물리학자에 의하면 중성미자에 작용하는 것은 약력, 혹은 작용에 관여하는 또다른 보손 입자로는 W 보손 입자가 있다. W 보손은 아래 쿼크를 위 쿼크로 바꿀 수 있고 전자를 중성미자로 바꿀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성미자가 평균 15분 후에 자발적으로 양성자, 전자, 반중성미자로 소멸하는 방사성 베타 붕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물론 여기에서 중성미자란 원자핵 속에 구속되어 있는 중성미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중성미자를 말한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중성미자가 15분 후에 다른 소립자로 붕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약한 상호작용은 이 방사성 붕괴를 통해 처음 발견되었다. 양자역학의 확률 특성에 의해 W 보손은 검출할 수 있는 물리적 입자로서가 아니라 검출되지



않는 가상입자로서 존재할 확률이 작지만 분명히 있다. 자연계에는 수많은 중성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확률이긴 해도 분명 이를 관찰할 수 있다. W가 기능하면 아래 쿼크는 위 쿼크로 바뀐다. 그리고 W보손은 곧바로 전자와 반중성미자로 붕괴된다. 따라서 관찰되는 것은 중성미자가 붕괴하여 양성자와 전자, 반중성미자가 생기는 방사성 베타 붕괴 현상이다. W, Z 보손은 1983년 2월에 중성미자 에너지를 공급한 실험실에서 드디어 물리적 입자로 관찰되었다. W, Z 보손에 대한 명확한 증명으로 표면적 이중성을 초월한 통일된 약한전자기력 이론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불자의 기본 예절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바른 수행의 밑거름이 되는 불교집안의 예절.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욕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곁들여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4x6 판 / 3,5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큰스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금껏 적습니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큰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x6 판 / 3,500원

생활속의 기도법



신국판 / 5,000원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윤리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리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윤리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쓴 해설집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큰스님의 강설집
- **범망경보살계 1-5** 신국판 / 각권 6,000원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큰스님의 무애변(無礙辯)을 담은 책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일타큰스님의 유성법문 테이프